

보건 간호 실습 계획을

위한 실태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김 모 임 · 김 의 숙 · 조 원 정

(차)	(례)
영문 초록	
1. 서론	3) 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태
2. 조사 지역 및 대상	6. 총괄 및 고안
1) 조사 지역 및 선택 이유	1) 조사 지역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 및 크기	2) 모성 보건
3. 조사 기간	3) 영유아 보건
4. 조사 방법	4) 결핵 보건
5. 조사 결과	5) 가족 계획
1) 총 세대수	7. 결론
2) 실습 지역의 보건 간호 사업 대상 실태	참고 문헌
	부 록

Abstract

That's an attempt to study about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of the residents with regard to maternal child health, family planning, and tuberculosis in rural area which was chosen to be a demonstration area for nursing students of College of Nursing, Yonsei University for their public health nursing practice.

In addition, it is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on population of the area such as age and sex distribution, mobility, and other characteristics also be sought by doing a census.

The purpose of study is to obtain data which are needed for planning student learning experiences in the community.

The information which was obtainable through this study is as follows;

1. In demographic aspect
 - a. Population structure was a typical rural type in terms of population pyramid.
 - b. Distribution of age and sex of residents showed more female in the older ages.
 - c. Population has not moved much. Majority of them have been living in the area since their births.
2. In sociological aspect
 - a. The level of education of female was comparatively lower than male.
 - b. The residents of the area did not have any special religion.
 - c. The economic status was found low or middle class.
3. In health practice

In general health knowledge, attitudes and practice appeared to be poor.

4 간호학회지 (1)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could be summarized that there are a great public health nursing needs in the community. According to these needs found and to its nature, severity and massiveness, the nurse instructors with students were able to set up a priority system in services. Meanwhile student case load can be logically figured out in consideration of variety of experiences need for each student.

The study helped student not only to find out resident characteristics and their health problems in terms of family and community problem but also to provide a good learning experience by participating in the interviewing.

In sum this type of study is necessary for planning of student field experience when no data are available where students are going to have field experiences in public health nursing.

1. 서 론

본 연구 조사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농촌 보건간호 실습 지역으로 선택한 고양군 성사 1리 지역 주민의 일반적 성격과 보건—특히 모자보건, 가족계획, 및 결핵—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태등 보건간호 실습 계획에 필요한 재료를 얻고져 시행된 것이다.

본 연구 조사 결과로 얻어진 지식은 성사 1리 실습 지역의 보건 실태를 일부 파악하여 학생 보건간호 실습 계획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개개 가정을 위한 보건간호 계획에 이용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지역이 필요로하는 보건간호 사업 계획의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이 실습 지역을 선택하여 이와같은 실태 조사를 하게 됨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어느 학교에서나 마찬가지로 생각되지만 적합한 보건간호 실습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며, 또한 적합한 실습 장소로 보건소가 있다고 하여도 사업이 활발한 곳으로 알려진 보건소는 수십명의 각 학교 학생들이 겹쳐져서 학생들의 실습에 충실을 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보건소 경험이 교실에서 배운 것과는 너무 다르므로 학생들에게 실망과 갈등을 주게되고 따라서 현재의 보건소 실습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보건간호 사업을 위한 비전(vision)을 주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

이다.

예를 들면 강의실에서 generalized public health nursing을 지향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보건소 실습은 specialized public health nursing으로 국한한다면 generalized public health nursing을 지향해야 할 이유를 체험, 체득할 길이 없는 것이다.

세째는 보건간호원의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보건소 이용자의 보건간호 기록이 학생들이 보건간호 계획 실습에 이용할만큼 준비되어있지 않을 뿐 아니라, 등록된 가정 혹은 환자의 추후 관찰 사업이 또한 부진하여, 학생들에게 가정 방문을 하도록 실습 활동을 하여도 실습 시간의 대부분을 집을 찾는데 보내기 때문에 보건간호 실습에 실(實)을 기할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고양군 보건소가 관할하는 지역의 일부 지역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보건간호 실습 지역으로 정하고 보건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보건간호원과 학교 선생님의 감독하에 보건간호 실습의 철저를 기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 조사는 일개의 이 지역 보건 실태 파악으로써의 의의외에 간호학생들의 교육 재료 및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보건간호 실습 계획에 대한 기초 작업이며 또한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같은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실습 지역의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의 발전 정도를 평가하고 이에따라 지역 사회에 미친 학생 실습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기본 자료로 사용하고저 한다.

는 3번이었다.

2. 조사 지역 및 대상

1) 조사 지역 및 선택 이유

조사 지역으로는 경기도 고양군 원당면 성사 1리를 택하였는데 성사 1리를 조사 지역으로 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소와 거리상 가깝고 다른 지역에 비하여 교통이 편리한 곳이므로 학생들이 방문하거나 보건소에 환자를 의뢰하기 쉽기 때문이다.

2. 1960년대에 약 10년간 시범 보건 지역으로 선정되어 보건사업을 받아왔으므로 새로운 보건사업의 시도에 큰 저항이 없고 또한 특별한 물질적 혜택이 없이 보건교육만 실시할 수 있는 단계에 놓인 지역 사회일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3. Health resource로서 개혁 선교부가 있고, 이 개혁 선교부가 마련한 소규모의 health insurance를 이 지역 주민이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경비가 드는 건강 문제 해결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의뢰가 가능한 health resource 없이 보건간호 사업은 어렵기 때문이다.

2) 조사 대상 및 크기

성사 1리 전 주민의 보건 실태 파악이 본 조사의 큰 목적임으로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하겠으나 면접을 통한 조사임으로 면접 대상을 만 15~49세 연령군의 결혼한 여자로서 영유아 보건, 모성 보건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에 관한 조사를 하였고 가족계획 및 결핵에 관한 면접 대상만은 만 15~49세 연령군의 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령군에 있는 전 여성의 수는 총 여성 인구수 264명에서 0~14세의 인구수 96명과 50세 이상의 인구 41명, 도합 137명을 제외한 107명 이었다.

이 중 면접이 가능한 사람의 수는 93명으로 총 대상자 107명의 86.9%이었고 기혼 여성은 67명중 100% 다 면접하였다. 평균 방문 횟수

3. 조사 기간

조사 기간은 1970년 4월 20일부터 4월 23일 까지 3일간이었으며 4월 17일에 서대문구 연희동, 창천동에서 30 case의 pre-test를 실시한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4. 조사 방법

어느 한 지역에 보건간호 사업 계획을 세우려면 우선 그 지역사회의 nursig needs(간호 요구)가 무엇인지를 진단해 내어야 한다. 이 간호요구는 1) 보건간호를 제공하는 자의 견지에서 본 것과 2) 보건간호 사업을 이용할 주민의 견지에서 본 것의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보건간호 사업 계획은 서비스를 제공 받는 자와 제공 하는 자가 본 간호요구에 기반을 두어 계획되어야 한다. 보건간호 활동은 이러한 보건간호 사업 계획이 있을 때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건간호 요구를 측정하는데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1) 인구 대 필요로 되는 보건간호 인력 수로 보건 간호 요구의 절대성을 측정할 수 있으며

2) 보건간호 활동이나 보건간호 program에 사용한 시간 또는 활동 및 기능의 내용을 분석하여 보건 간호 요구의 절대성 및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3) 보건간호원을 위하여 준비된 T.O.를 세어서 간호 요구의 크기를 측정할 수도 있으며

4) 주민들이 여론화한 대정부 및 민간단체에 대한 보건간호 사업 요청 정도에 의해 알 수 있으며

5) 기존해 있는 이에 관한 자료

6) 그 지역사회 주민의 보건간호 요구 측정을 위한 실태 조사 방법도 있다.

1)은 국가적 보건 간호 계획에는 이용할 수

6 간호학회지 (1)

있는 방법이나 소규모의 지역 사회 보건간호 계획에는 너무 거칠어서 이용할 수 없으며

2)는 현 우리나라 보건간호 사업 프로그램이 지역 사회에 있는 보건간호 요구를 대변할 만큼 포괄적이고 충실치 못하며

3)은 현 우리나라 보건사업을 위해 마련된 T.O.는 예산 및 인적 자원으로 인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나라 보건간호 사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4)는 지역 주민의 사회, 교육, 문화 정도로 보아 보건간호의 필요성을 분명히 표현할 수준이 못되며

5)는 보건간호 계획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존 자료가 없으므로

6)은 지역 사회 주민의 보건간호 요구를 측정하는 실태 조사가 불가피하게 필요로 되었다.

1. 위와 같은 이유로 실태 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census를 하고 질문 대상자를 파악한 후 면접하였다.

2.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질문지를 작성하여 이에 의한 현지 면접을 했다.

질문지는 가구원 구성 기록표와 모성보건(10개 질문), 영유아 보건(17개 질문), 가족 계획(15개 질문), 결핵보건(10개 질문)으로 구성하여 4개 부문 보건의 지식과 태도 및 실태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3. 10명의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에게 면접 기술에 대한 특별 교육을 실시 하였다.

4. Pre-test를 통하여 질문지를 재 수정하여 질문지의 완벽을 기하도록 노력하였다.

5. 조사 전에 이장에게 연락하여 조사 기간 동안에는 가능한 주민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줄 것을 의뢰하였고

6. 면접이 가능치 않아 미완인 경우를 최대한으로 줄이기 위해 저녁(6시~9시)에도 면접을 실시하였다.

7.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경우는 직장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8. 면접이 끝난 질문지는 본 대학 보건간호학 선생님들이 현지 면접 감독으로 나가서 검

토하여 미비한 점은 재 면접을 하도록 하였다.

9. 이렇게 얻어진 자료는 현지 조사를 나아갔던 학생들을 훈련하여 집계 제표하여 분석하였다.

5. 조사 결과

1) 조사 지역의 일반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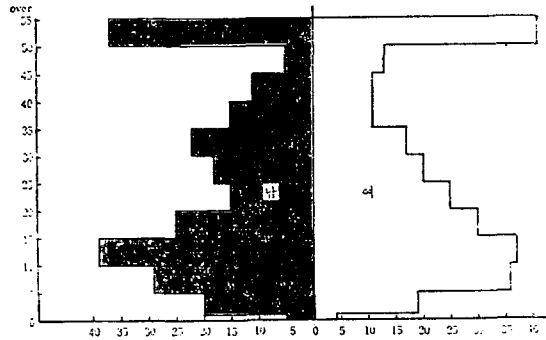
(1) 총 세대수

조사 지역의 총 세대수는 91세대이었다.

(2) 인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

조사 지역의 총 91세대의 남자 인구는 241명, 여자 인구는 264명으로 여자가 약간 더 많았으며, 농촌 인구의 전형적인 model로 청장년 층이 상당히 적었고 50세 이상과 15세 미만의 인구가 많았다.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상당히 적다는 것은 특기할만한 사항이라 하겠다.

(그림 1) 인구의 연령 및 성별 분포



(3) 가족 크기

<표 1> 가구원 크기의 분포

가	족	수	가	구	수
1			1		1
2			5		5
3			7		7
4			13		13
5			14		14
6			20		20
7			10		10
8			10		10
9			5		5
10			4		4
11			1		1
12			1		1
Total					91

가구원 수는 1명에서 12명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 5.9명으로 대부분이 6명의 식구를 가지고 있었다.

(4) 경제 상태

조사자가 본 경제상태는 중이 54세대 (59.3%)로 가장 많았고 하가 25세대 (27.5%)로 차 뒤였으며 상은 12세대 (13.2%)이었다.

<표 2> 조사자가 본 조사 대상 가구의 경제 상태

경제 상태	가 구 수	%
상	12	13.2
중	54	59.3
하	25	27.5
Total	91	100.0

(5) 방의 수

조사 지역 가구의 평균 방수는 2.3개였다.

<표 3> 조사 대상자의 종교

연령	종교 (%)			Total
	신 교	불 교	무 종교	
15~19	21.4	14.3	64.3	100.0
20~24	6.7	20.0	73.3	100.0
25~29	20.0	20.0	60.0	100.0
30~34	18.8	18.7	62.5	100.0
35~39	27.2	27.3	45.5	100.0
40~44	—	10.0	90.0	100.0
45~49	16.7	33.3	50.0	100.0
Total	16.1	20.4	63.5	100.0

(6) 종 교

대상자의 종교 분포를 보면 많은 수가 (63.5%) 무종교이었고 나머지 가불교 (20.4%)와 신교(16.1%)이었다. 연령군에 따른 종교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표 3>

(7) 교육 정도

조사 지역 주민들의 교육 정도를 보면 남자 20%, 여자 45.3%가 국민학교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으며 40% 이상이 국민학교 졸업 정도이고 중학교에서는 남 14.8%, 여 10.6% 정도의 차이를 보이나 고등학교에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비가 3:1, 대학에서는 남자와 여자와의 비가 5:1의 비율로 남녀 교육의 차이가 현저함을 알 수 있었다.

<표 4> 교 육 정 도

연 령	교육 정도 (%)									
	무 학		국		중		고		대 이상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9	38.0	75.0	62.0	25.0	—	—	—	—	—	—
10~14	—	5.5	79.4	70.2	20.5	24.3	—	—	—	—
15~19	8.0	13.4	44	56.6	32	23.3	8.0	6.7	8.0	0
20~24	6.7	0	26.7	75.0	46.6	20	13.3	5.0	6.7	0
25~29	0	0	38.8	80.0	27.7	15	22.2	—	11.1	5.0
30~34	0	11.7	31.8	52.9	36.2	23.5	13.6	5.9	18.1	5.9
35~39	6.7	27.3	60.0	63.6	13.3	0	20.0	0	0	0
40~44	18.1	54.5	63.6	45.4	9.0	0	9.0	0	0	0
45~49	40.0	84.6	20.0	15.3	20	0	20.0	0	0	0
50이상	64.9	85.7	32.4	24.3	2.7	0	0	0	0	0
Total	20.1	45.3	44.8	41.2	14.8	10.6	6.6	2.2	3.7	0.7

(8) 조사 대상자의 거주 연수

조사 대상자(15~49세 연령군)들이 그 지역에서 최소 연수(5년 이하)동안 거주한 사람은 불과 16.1%이고 6~14년이 22.6%이며, 15년 이상이 62.4%로 대부분이 15년 이상 이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연령군으로 나누어 본 결과 15~19세 군은 100% 이 고장을 떠나지 않았고 40~49세 연령군도 대부분 이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나 30~34세 군이 6.2%, 25~29세 군이 20.0%로 15년 이내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많았다.

<표 5> 조사 대상자의 조사 지역 거주 연수 분포

연령	연수 (%)			Total
	5년이하	6~14년	15년이상	
15~19	—	—	100.0	100.0
20~24	20.0	6.7	73.3	100.0
25~29	46.7	33.3	20.0	100.0
30~34	18.8	75.0	6.2	100.0
35~39	9.1	18.2	72.7	100.0
40~44	10.0	—	90.0	100.0
45~49	—	8.3	91.7	100.0
Total	16.1	22.6	62.4	100.0

2) 실습 지역의 보건간호 사업 대상 실태

(1) 가입부의 총 수와 연령 분포

지역 전체의 91세대에 가입 연령군에 있는 여자의 총수는 107명이고 이중 면접이 가능했던 수는 93명으로 그 연령 분포를 보면 <표 6>과 같으며 이 중 총 가입부 수는 67명이고 그

8 간호학회지 (1)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6> 연령군으로 본 조사 대상자 및 가입부 분포

년 령	조사대상자	가 입 부
15~19	14(15.1)	0
20~24	15(16.2)	4(6.0)
25~29	15(16.2)	14(20.9)
30~34	16(17.2)	19(23.9)
35~39	11(11.8)	11(16.4)
40~44	10(10.8)	10(14.9)
45~49	12(12.7)	12(17.9)
Total	93(100.0)	67(100.0)

()안은 %

(2) 현존 자녀수

가입부들이 가지고 있는 평균 자녀 수는 4명 (262/67=3.9)이었고 평균 가족수는 6명 이었다.

(3) 임신 횟수

가입부들의 임신횟수를 조사해 본 결과 대부분이 3~5회 였고 연령이 많을수록 많은 임신횟수를 보였으며 총 임신수에 대한 인공유산률은 5.3%, 자연 유산률은 3.6% 이었다.

<표 7> 연령별로 본 기혼 여성의 임신수 분포

Age	임신수											
	0	1	2	3	4	5	6	7	8	9	10	11 & more
15~19												
20~24	2	1	1									
25~29		2	4	4	4							
30~34			2	5	5	4						
35~39				1	1	3	2	3	1			
40~44				1		4	1		2	1	1	
45~49		2	1	1	2	2		1	2	1		
Total	2	5	8	12	12	13	3	4	5	2	1	

(4) 주민들의 건강 상태

지역 주민 505명의 건강 문제를 질문해 본 결과 「좋다」가 84.2%, 「보통이다」가 2.4%, 「약하다」가 4.4%, 「병중이다」가 8.9%였으며 「병중이다」라고 한 사람중에는 결핵과 위장장애 및 신경혈압증이 가장 많았다.

<표 8> 응답자 진출에 의한 가족의 건강 상태

건강상태	수(%)
좋다	425(84.2)
보통	12(2.4)

약하다	23(4.4)
병중이다	45(9.0)
결핵	10(2.0)
위장장애	10(2.0)
신경혈압증	10(2.0)
급성상기도 감염	6(1.2)
천식	3(0.6)
간질	1(0.2)
청력장애	1(0.2)
당뇨	1(0.2)
피부질환	1(0.2)
빈혈	1(0.2)
시력장애	1(0.2)
Total	505(100.0)

3) 보건에 관한 지식, 태도 및 실태

(1) 모성 보건

임신 정도에 따른 산전 모성 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산전 진찰이 필요로 되는 횟수와 임신 오조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임신 3개월 경의 진찰횟수를 옳게(월 1회) 대답한 사람이 35.8%, 틀리거나 모르는 사람도 포함 64.2% 이고 임신 7개월 경의 산전 진찰 횟수를 옳게(월 2회) 대답한 수는 16.4%, 임신 말기의 산전 진찰 횟수에 대한 옳은 답(월 4회)을 한 수는 10.5%에 불과했고 실천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임신 확인을 위해서 한두번 가나 중·말기에는 거의 안가는 실정이었다.

임신 오조에 대해서는 식전에 간단한 식사를 한다는 상식적 처리도 못하고 대부분이(98.4%) 그냥 참는다고 하였다.

분만 장소는 병원을 좋다고 한 것을 옳다고 하고 집에서 낳는 것이 좋다고 한 것을 틀린 답으로 했으며 분류한 결과 모른다는 사람은 없었으나 집에서 낳는 것이 병원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5.9%나 되었으며 실천한 것을 보면 92.3%가 가정에서 분만을 하였다.

제대 절단시 가위를 뿔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27.9% 정도였고 산육기간에 관한 지식은 (6~8주) 4.5% 정도로 여성으로서 생리적 산육기간에 대한 상식이 없음을 나타내었으며 아직 초유를 짜바리는 것이 좋다고 한 응답이 67.1%나 되었다.

지식과 실천과를 비교하여 보면 옳은 지식은 초유 처리에 관한 경우 이외에도 현저하게 낮은 실정을 보였다.

<표 9> 모성 보건에 관계된 8가지 사항에 대한 지식과 실천 (%)

질문	지식			실천		
	옳은 답	틀린 답	모르겠다	옳은 답	틀린 답	모르겠다
임신 3개월쯤에는 얼마나 자주 진찰을 받아야 한다 ¹⁾ 고 생각하십니까?	35.8	40.3	23.9	12.8	80.9	6.3
임신 7개월쯤에는 얼마나 자주 진찰을 받아야 한다 ²⁾ 고 생각하십니까?	16.4	53.7	29.8	1.5	87.9	10.5
분만이 가까워졌을 때에는 얼마나 자주 진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0.5	61.1	28.4	—	90.9	9.0
입덧이 나서 아침에 구역질이 심하게 나면 어떻게 ⁴⁾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10.5	62.6	26.8	1.5	56.6	41.8
아기는 어디에서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⁵⁾	64.1	35.9	0	8.7	92.3	0
태줄은 무엇으로 자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⁶⁾	65.6	19.4	14.9	27.9	66.1	6.0
산모가 분만 전과 같이 되는 산욕 기간은 얼마나 된다 ⁷⁾ 고 생각하십니까?	4.5	85.0	10.5	—	—	—
초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⁸⁾	20.9	67.1	11.9	37.3	58.1	4.5

주: 1) 의웁은 답: 1/month 2) 2/month 3) 4/month 4) 식전에 가벼운음식 5) 병원 6) 소독가위 7) 6-8주 8) 먹인다

신생아를 받을 준비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보면 제대사나 가위, 애기옷, 산모 월경대, 산모 밑에 깔 헛이불 등은 대부분 준비했으나 태반용 용기나 점안 용액을 준비한 사람은 적었다.

<표 10> 분만 준비에 대한 지식과 실천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

준비물	지식	실천
고무포 혹은 헛이불	59.7	66.2
제대사나 가위	52.2	44.8
태반용 용기	38.8	17.9
제대사	74.6	71.7
가위	73.2	77.6
산모 월경대	73.2	68.7
점안 용액	20.9	9.0
애기옷	73.2	77.6
기타	10.5	23.9
모르겠다	10.5	0

임신중 섭생에 대한 지식 정도를 보면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으며

<표 11> 임신중의 섭생에 대한 지식과 실천 (%)

	지식	실천
수면과 휴식	34.3	13.4
피부청결 및 목욕	22.9	14.9

영양	55.2	34.3
성교	22.9	10.5
유방간호	17.9	4.5
치아	10.5	3.0
체중	14.9	6.0
투약	1.5	—
모르겠다	32.8	53.7

15~50까지의 기혼여성 67명을 100%로 하였음.
Note: 1명이 2가지 이상 응답할 수 있음.

분만후 산욕기간 중의 주의점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를 보면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파로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은 80%정도가 알고 있었으나 그외에 출혈이나 회음 청결에 대한 지식은 30% 정도였고 실천한 것은 더욱 적어 유방 울혈에 대한 것은 단지 19.4% 정도만이 주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산욕기간 중의 주의점에 관한 지식과 실천 (%)

	지식	실천
출혈	34.4	16.4
무거운것들거나또는파로	82.1	73.2
회음 및 전신 청결	34.4	29.9
유방 울혈	31.4	19.4
기타	16.4	28.4
모르겠다	10.5	7.5

Note: 15~50세까지의 기혼여성 67명을 100%로 하였음.
1명이 2가지 이상 응답할 수 있음.

10 간호학회지 (1)

임신 가능 여부와 불임의 원인

임신 가능 여부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25.4%가 결혼 후 3년이 지나도록 한번도 임신한 경험이 없거나, 피임법 사용없이 마지막 분만 혹은 유산후 5년동안 임신이 안되었거나 등의 이유로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표 13> 임신 가능 여부

Age	예	아니오	모르겠다	Total
15~19	—	—	—	—
20~24	6.0	—	—	6.0
25~29	20.9	—	—	20.9
30~34	20.9	3.0	—	23.9
35~39	12.3	4.5	—	16.4
40~44	7.5	6.0	1.5	14.9
45~49	7.5	10.0	—	17.9
Total	74.6	23.9	1.5	100.0

Note: 결혼한 가임부 67명을 100%로 했음.

하고 불임증의 원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이 80.2%였고 원인으로 「배란이 안되어서」라고 대답한 사람이 10.0%, 「정충이 활발치 못해서」가 9.0%, 「난관이 막혀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5% 정도였다.

<표 14> 불임증의 원인에 대한 지식

불임증의 원인	배란이 안되어서	난관이 막혀서	정충이 활발치 못해서	모르겠다
%	10.0	4.5	9.0	80.2

Note: 결혼한 가임부 67명이 100%임. 한사람이 둘 이상 응답했음.

임신중의 위험 증상에 관한 지식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이 62.7%였고 하혈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28.4%

<표 16> 영유아 식이에 대한 지식

질문	지식			실천		
	옳은 답	틀리는 답	모르겠다	옳은 답	틀리는 답	모르겠다
모유와 우유중 어느것으로 애기를 키우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84.9	10.5	4.5	86.4	4.5	9.0
언제부터 애기에게 우유나 모유가 아닌 다른것을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7.9	71.5	10.5	9.0	85.0	6.0
애기 젖은 언제 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78.8	58.1	3.0	9.0	89.4	1.5

주: 1)의 옳은 답: 모유 2)의 옳은 답: 2~4개월 3)의 옳은 답: 1년이내

부중은 25.4%였으며 기타 두통, 지속적인 복통, 경련, dysuria의 증상이 위험 증상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었다.

<표 15> 임신중 위험 증상에 대한 지식

증상	부중	두통	하혈	계속적 복통	dysuria	경련	모르겠다
%	25.4	12.3	23.4	14.9	10.0	13.5	62.7

Note: 가임부 67명을 100%로 함. 한 사람이 둘 이상 응답했음.

(2) 영유아 보건

1) 영유아의 식이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에 대해서 질문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모유와 우유중 어느 것으로 애기를 키우는 것이 좋느냐는 질문에 모유가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84.9%, 우유가 더 좋다고 대답한 사람은 10.5%였으며 실천에 있어서는 지식보다 더 많은 86.4%가 모유로 양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 첨가 식이 시작에 관한 질문으로 언제부터 애기에게 우유나 모유가 아닌 다른것을 먹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2~4개월 사이로 대답한 사람이 17.9%에 불과했고 실천에 있어서는 더욱 적어서 단지 9%정도의 사람만이 2~4개월 사이에 첨가 식이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유 시기에 관한 질문으로 애기 젖은 언제 떼는 것이 좋겠느냐는 질문에 1년 이내로 대답한 사람이 38.8%였으며 이에 반해 실제로 1년내에 젖을 떼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9.0% 정도에 불과하였다.

2) 영유아 예방 접종에 대한 지식과 실천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D.P.T, 소아마비, 홍역, B.C.G, 종두에 대한 지식은 반 수 정도가 알고 있었으며 전혀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도 34.4%나 되었다. 실천에 있어서 D.P.T가 61.2%의 접종률로 으뜸이고 차위는 소아마비(59.7%), B.C.G(47.8%), 종두(38.8%), 홍역(29.9%)의 순서이며 장티부스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정도는 적었다.

<표 17> 영유아 예방 접종에 대한 지식 및 실천 (%)

			지	식	실	천
D.	P.	T.	64.2		61.2	
소	아	마	65.7		59.7	
홍	역		56.7		29.9	
종	두		47.8		33.8	
장	티	부	26.9		14.9	
B.	C.	G.	52.3		57.8	
모	르	겠	34.4		35.8	

추가 접종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를 알기 위해 「예방 주사는 아기 때 한 번 맞추면 끝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해 본 결과 「아니오」라고 옳은 응답을 한 사람은 47.7%였고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52.2%였다.

또한 예방 주사를 맞추는 장소에 대해서 알아 본 결과 82.2%가 보건소에서 맞았으며 9.0%가 개혁 선교부, 3.0%가 병원에서 맞었다고 응답했고 전혀 맞추지 않은 사람도 6.8%나 되었다.

<표 18> 추가 접종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

			지	식	실	천
옳	은	답	47.7		52.2	
틀	리	는	4.5		13.4	
모	르	겠	47.7		34.3	
Total			100.0		100.0	

(3) 결핵 보건

1) 결핵에 관한 지식 정도를 알기 위해

㉠ 결핵이 유전병이냐고 질문한 결과 유전병이 아니라고 옳은 대답을 한 사람은 불과 24.7%에 불과하였고

㉡ 결핵이 전염병이라는 사실은 거의 대부

분이 (91.0%) 알고 있었으며

㉢ 결핵이 예방할 수 있고 또 치료도 할 수 있는 병이라는 것은 80% 정도가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결핵 예방 주사인 BCG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72.8%) 23.6%에 해당하는 부인들이 본인은 전혀 결핵에 걸릴 위험성이 없다고 응답했다.

<표 19> 결핵에 관한 지식 정도 (%)

질	문	옳은답	틀린답	모르	겠다	Total
결핵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하	십니까?	24.7	62.4	12.9		100.0
결핵은 전염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91.0	3.2	5.4		100.0
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	니까?	74.9	6.4	18.2		100.0
결핵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	니까?	82.4	9.7	7.5		100.0
비·씨·지는 무엇하는 것입	니까?	21.4	5.4	72.8		100.0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부인	해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4.6	23.6	21.4		100.0

주: 1) 의 옳은 답: 유전병이 아니다. 2) 의 옳은 답: 전염되는 병이다. 7) 의 옳은 답: 결핵 예방 주사 8) 의 옳은 답: 있다.

㉤ 폐결핵의 증상에 대한 지식 정도를 보면 「기침」이 68.5%, 「창백」이 57.8%, 「피를 토함」이 39.6%, 「피로」가 36.4%, 「체중 감소」가 31.5%, 「밤에 식은땀」이 15.0%였다.

<표 20> 폐결핵의 증상에 대한 지식

폐결핵의 증상	기침	체중 감소	피로	창백	호흡이 짧아짐	피를 토함	허약	밤에 식은땀	모르	겠다
%	68.5	31.5	36.4	57.8	28.9	39.6	51.4	14.9		18.2

2) 또한 결핵에 대한 태도로써·만약 결핵에 걸리신다면 어느정도 치료에 힘쓰실 수 있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전재산을 들여서라도 치료에 힘쓰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67.7%였고, 돈을 전혀 못들이겠다는 사람은 3.2%, 그때

<표 21> 연령군으로 본 결핵에 대한 태도 (%)

나	이	전재산	1년 농사	반년 농사	돈못들임	모르	겠다	Total
15~19		7.5	1.1		2.2	4.3		15.1
20~24		14.0	1.1				1.1	16.1
25~29		12.9				3.2		16.1

12 간호학회지 (1)

30~34	10.7	3.2		3.2	17.2
35~39	6.5		1.1	4.3	11.8
40~44	8.6			2.2	10.8
45~49	7.5	1.1		3.2	1.1 12.9
Total	67.7	6.5	3.2	20.4	2.2 100.0

봐야 알겠다, 잘 모르겠다 등이 22.6%였다, 그외에 아직도 결핵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냐는 질문에 47.3%가 「아니오」라고 대답했고 30.1%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숨기려고 하는 이유로는 대부분이 전염병이고 나쁜 병이어서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4) 가족 계획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이 어느정도 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 가족계획이란 무슨 말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가지고 싶은 수 만큼의 자녀를 가지고 싶을 때 낳는 것」이라고 옳은 응답을 한 사람은 52.4%로 반수 정도였고

㉡ 우리나라에서 추천, 시행하는 Loop삽입 적기에 대한 지식을 알아본 결과 「월경 시작

후 10일 이내」라고 옳은 답을 한 수는 33.2%였으며

㉢ 먹는 피임약의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을 보면 「매일 한 알씩 먹는 것」이라고 옳은 응답을 한 사람이 24.0%였고

㉣ 정관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전혀없고 틀린 답의 21.4%가 대부분 여자 같이 된다 던가 기운이 없어진다고 응답했다.

<표 22>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

	옳은답	틀린답	모르겠다	Total
가족계획이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2.4	25.6	22.0	100.0
루프는 언제 삽입할 수 있습니까?	33.2	8.0	58.8	100.0
먹는 피임약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24.0	71.7	4.3	100.0
정관 수술의 부작용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0	21.4	78.6	100.0

㉤ 각 피임 방법의 장단점에 대한 지식을 알아본 결과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장단점에서 모두 65%정도 되었고 맞는 대답을 한 사람은 숫자가 아주 적어 10% 정도였다.

<표 23>

I.U.D, OP, Condom, Vasectomy의 장단점에 대한 지식 상태

(%)

	장 점					단 점							
	경계	정확	간편	성감지정무	모르겠다	없다	부작용없다	부작용부정확	불편	성감장애	없다	기타	모르겠다
I U D	6.5	18.3	17.2	1.1	60.2	4.3	—	26.9	7.5	—	—	7.5	61.3
O P	—	7.5	14.0	—	66.7	—	9.7	14.0	—	10.7	1.1	1.1	73.1
Condom	—	9.7	8.6	—	74.2	—	11.8	—	3.2	7.5	5.4	*8.6	73.3
정 관 수 술	2.2	7.5	8.6	—	74.2	4.3	—	11.8	—	—	—	**11.8	64.5

* 서로 협조 잘 안됨 ** 복원 불가능

㉥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를 알아본 결과 피임법의 종류는 평균 2.4가지로 2~3가지의 종류를 알고 있었으며 I.U.D가 66.7%로 수위였고 Oral pill이 64.5%, Condom 50.5%, 수술 23.7%의 차례였다.

<표 24>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

가족계획 방법	%
I U D	66.7
Oral pill	64.5
Condom	50.5
불 입 수 술	23.7
기 초 체 은	11.8

발 포 성 정 제	4.3
멧 사 리	11.8
질 의 사 정	1.1
추 사	2.2
모 르 겠 다	24.7

Note: 조사 대상자 93명이 100%임.
한 사람이 2가지 이상 응답했음.

가족계획 방법의 실천도를 보면 기혼여성 67명 중에 49.3%가 한가지라도 사용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실천한 방법은 I.U.D (34.3%), Condom(31.3%), Oral pill(10.4%)의 순서였다.

<표 25>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실천 정도

가족계획 방법	%
I U D	34.3
Oral pill	10.4
Condom	31.3
불 입 수 술	1.5
기 초 제 은	—
발 포 성 정 제	1.5
멧 사 리	—
질 의 사 정	—
주 사 사	—
모 르 겠 다	1.5

Note: 기혼녀 67명이 100%임.
한 사람이 2가지 이상 응답했음.

<표 26> 연령군으로 본 가족계획 방법 실천 정도 (%)

연령	실천여부			Total
	예	아니오	Total	
15~19	—	—	—	
20~24	25.0	75.0	100.0	
25~29	64.3	35.7	100.0	
30~34	37.5	62.5	100.0	
35~39	90.9	9.1	100.0	
40~44	50.0	50.0	100.0	
45~49	16.7	83.3	100.0	
Total	49.3	50.7	100.0	

가임부 67명이 100%임.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로서 가족계획의 찬성 여부를 알아본 결과 79.5%가 「찬성한다」고 하였고 15.1%가 「관심없다」, 5.4%가 반대하고 있었으며 25~29세, 35~39세의 연령군에서는 100% 찬성하는 것으로 응답했다.

<표 27>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 여부 (%)

연령	찬성여부			Total
	예	아니오	관심없다	
15~19	50.0	21.4	28.6	
20~24	73.3	6.7	20.0	
25~29	100.0	0	0	
30~34	93.7	6.3	0	
35~39	100.0	0	0	
40~44	90.0	0	10.0	
45~49	50.0	0	50.0	
Total	79.5	5.4	15.1	

가족계획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는 자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더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59.1%였고 아니오

또는 모르겠다라는 것이 40.9%이었다.

<표 28> 가족계획 방법 교육 요청의 연령별 분포 (%)

Age	예	아니오	모르겠다
15~19	9.8	5.4	2.2
20~24	12.9	3.2	—
25~29	14.0	3.2	—
30~34	11.8	5.4	—
35~39	6.5	5.4	—
40~44	3.2	7.5	—
45~49	10.3	8.6	—
Total	59.1	38.7	2.2

보건소에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없다」가 23.7%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무슨 사업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적었고, 그 다음이 영유아 사업(19.4%), 치료사업(16.2%), 가족계획 사업(15.1%), 그 다음이 환경위생과 결핵사업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었다.

<표 29> 보건소에 희망하는 사업

종 류	%
치 료 사 업	16.2
가 족 계 획 사 업	15.1
영 유 아	19.4
환 경 위 생	11.8
진 강 진 단	5.4
결 핵 사 업	11.8
없 다	23.7
모 르 겠 다	5.4

6. 총괄 및 고안

1) 조사 지역의 일반적 특성

조사 지역의 세대수는 총 91세대로 남자 241명, 여자 264명이며 평균 가구원 수는 6명이었다.

조사 자가 본 경제상태는 상이 13.2%, 중이 59.3%, 하가 27.5%였으며, 교육 정도는 무학이 남자가 20.1%, 여자 45.3%, 국졸이 남 44.8%, 여 41.2%, 중졸이 남 14.8%, 여 10.6%, 고졸이 남 6.6%, 여 2.2%, 대졸이 남 3.7%, 여 0.7%였다. 이것을 양¹⁾(1968) 등이 조사한 서울시 연희동, 창천동 지역의 교육정

도인 무학 19.7%, 국졸 22.7%, 중졸 17.4% 고졸 16.4%, 대졸 23.6%와 김²⁾(1969)의 서울시 종로구, 마포구 보건소에 등록된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교육 정도인 무학 남 1.4%, 여 5.5%, 국졸 남 9.2%, 여 39.6%, 중졸 남 19.4%, 여 25.4%, 고졸 남 42.8%, 여 24.7%, 대졸 남 27.2%, 여 4.8%와 비교하여 볼 때 서울과 지방의 현저한 교육 정도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보건간호 교육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여자의 거의 반은 무학이고 약 86.5%가 국민학교 이하의 교육 경험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62.4%가 15년 이상 이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이 지역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현존 자녀수를 보면 3.9명이며 양¹⁾의 조사 결과인 3.5명과 허³⁾(1968)의 서울시 삼양 2동 영세민 지역의 조사 결과인 3.3명과 비교할 때 약간 많은 수를 보이고 있었으며 우리나라의 가족 크기의 대표치인 5~6에 가까운 실정을 파악할 수 있었다.

2) 모성 보건

(1) 산전 관리

올바른 산전 진찰 횟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5~35.8%였으며 실제로 임신 초기에 한달에 한번 산전 관리를 받은 사람은 12.8%, 임신 중기에 한달에 2번 받은 사람은 1.5%, 임신 말기에 1달에 4번 관리를 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임신 기간간 중 한번이라도 산전 진찰을 받아본 사람은 29.9%로 서울 지역 조사 결과인 양¹⁾의 35.9%, 김²⁾의 33.0%, 허³⁾의 29.9%, 권⁵⁾의 50.8%와 비교하여 볼 때 허³⁾의 영세 지역과는 같으나 다른 지역보다는 낮은 율을 볼 수 있었다.

이 지역의 산전 관리는 임신 월수에 따라 오히려 역비례하는 현상을 보였고 앞으로 산전 관리에 있어 보건간호 활동이 절실히 요청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임신 후반기의 산전관리에 대한 중점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임신중 섭생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를 보

면 영양 섭취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55.2%, 수면과 휴식에 대해서는 34.3%, 청결과 성교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22.9% 정도였고 실천에 있어서는 영양 섭취 34.3%, 피부 청결 및 목욕 14.9%, 수면과 휴식이 13.4%로 모체 건강과 건강한 태아 출산을 위한 교육도 그 지역 생활 환경과 개인 형편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영역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분만 준비에 대한 지식 및 실천을 보면 제대사, 가위, 애기옷, 산모 월경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은 70% 이상이었고 고무 폭은 훗이불, 대야 등을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0% 이상이었으며 실천 정도는 오히려 지식보다 높은 수로 나타났다. 이는 준비없이 분만에 임했다가 응급으로 마련한 상태를 말하고 있다고도 하겠으며, 알고 있어도 질문을 당했을 때 충분히 응답치 못한 사실의 반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다. 이와 반대로 신생아의 눈에 대한 간호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주의가 요청되는 일이다.

임신중 위험 증상에 대한 지식을 보면 하혈이 28.4%로 수위였고 부종이 25.4%로 차위였으며 계속적 복통, 경련, 두통, dysuria는 10%정도였다.

이와같은 임신중의 위험 증상에 대한 지식의 결여는 임신 합병증 예방을 어렵게 하는 조건이 되므로 이 분야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임신오조에 있어서는 10.5% 정도가 임신오조의 관리 방법을 알고 있었으나 1.5%만이 시행했다고 응답했다.

일반적으로 임신중 섭생에 대한 지식도 알고 실천은 더욱 못하고 있는 실태로 지식과 실천이 부실한 이유에 대한 조사 연구가 앞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2) 분만 장소

분만 장소로서 병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64.1%였으며 실제로 가정에서 분만한 사람은 92.3%로 양¹⁾의 가정 분만률 76.4%,

김²⁾의 58.9%, 허³⁾의 75.3%, 권⁵⁾의 62.5%와 비교하여 볼 때 가정 분만률이 훨씬 높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서울과 지방의 지역적 차이가 아닌가 한다.

64.1%가 병원을 적합한 분만 장소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2.3%가 가정 분만을 할 수 밖에 없는 지역임을 고려해 볼 때 가정 분만 사업의 전개 또는 병원 분만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겠다고 하겠다.

(3) 제대 절단 방법

제대 절단시 소독된 가위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65.6%였으며 실제로 가위를 끓여서 사용한 사람은 27.9%였고 이를 허³⁾의 조사 결과인 10.0%와 비교해 볼 때 서울 지역의 영세 지역보다 훨씬 높음을 볼 수 있었으나 제대 처리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어야 하겠다.

(4) 산후 관리

산욕 기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5% 정도였으며 산욕 기간중에 무거운 것을 들거나 과로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82.1%로 수위였고 그의 산후 출혈이나 회음 및 전신 청결, 유방울혈에 대해 주의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30% 정도였다. 이와같이 산후 출혈이나 회음 및 전신 청결, 유방 울혈등에 대한 산후 관리의 기본적인 지식도 결여되어 있으며 또한 생리적 현상인 산욕 기간을 4.5% 정도밖에 모르고 있는 것으로 보아 거의 대부분의 산모가 산후 섭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3) 영유아 보건

(1) 영유아 식이

모유로 양육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84.9%였으며 실제로 모유로 양육한 사람은 86.4%, 우유는 10.4%, 혼합은 4.5%였으며 이것을 김²⁾의 서울시 종로구와 마포구 보건소에 등록된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 모유 72.6%, 우유 7.5%, 혼합 19.9%와 비교하여 볼 때 모유는 훨씬 높은 율을 보였고 우유와 혼합은 낮았다.

초유를 짜버리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67.1%나 됨은 초유의 면역학적 가치를 생각할 때 큰 손실이며 오래된 옳지 않은 관습에서 헤어날 수 있게 계몽교육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첨가 식이에 대한 시기는 17.9%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2~4개월 사이에 첨가 식이를 시작한 사람은 9.0%였다.

이유 시기는 1년 이내가 좋다고 올바른 지식을 가진 사람은 38.8%였으나 실제로 1년내에 이유를 한 사람은 9.0%에 불과하였다.

모유로 양육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농촌이라는 환경과 위생적 처리를 고려하고 어린이 정서 성장이나 영양으로 보아 좋은 현상이라고 하겠으나 대다수의 첨가 식이의 지연은 오히려 어린이의 신체 성장을 위한 건전한 영양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것으로 미루어 보아 이 어린이 영양 문제도 보건간호 요구로 대두되고 있다고 하겠다.

(2) 예방 접종

예방 주사를 맞히는 장소로는 보건소가 82.2%, 선교부가 9.0%, 병원이 3.0%였으며 전혀 예방주사를 맞히지 않았다는 사람도 6.8% 있었다.

이것을 노⁶⁾(1969)의 경기도내 9개군을 대상으로 조사한 발표로서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시행한 사람이 16.5%인 것과 전혀 맞추지 않은 사람이 9.0%와 비교해 볼 때 훨씬 높은 비율로 이 지역의 예방 접종에 대한 높은 보건소 이용률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예방 접종 종류에 관한 지식으로는 소아마비가 65.7%로 수위이고 D.P.T.가 64.2%, 홍역이 56.7%, B.C.G.가 52.3%, 풍두 47.8%, 장티부스 6.9%의 차례였으며 실천 정도를 보면 D.P.T.가 61.2%로 수위였고 다음이 소아마비(59.7%), B.C.G.(47.8%), 풍두(38.8%), 홍역(29.9%), 장티부스(14.9%) 차례였는데 이 실천률을 노⁶⁾의 풍두 69.5%, 소아마비 60.9%, 홍역 10.1%, B.C.G. 63.7%, D.P.T. 65.6%와 비교해 볼 때 오히려 실천률이 낮음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어떤 종류의 예방 접종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는 것과 기억 부족의 원인도 있지 않은가 생각된다.

4) 결핵 보건

결핵에 대한 지식을 보면 아직도 결핵을 유행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62.4%나 되나 전염되는 병이라는 것은 91%로 거의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며 결핵이 치료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82%나 되었다.

그러나 B.C.G가 결핵 예방주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21.4%로 적었고 자신이 결핵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54.6% 정도였다.

결핵 증상에 대한 지식도 종류에 따라 14.9%~68.5% 정도로 아는 정도가 다양하였으며 결핵에 대한 태도를 보면 만일 결핵에 걸린다면 전 재산을 들여서 치료하겠다는 수가 67.7%로 결핵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것은 결핵 간호 사업을 위한 좋은 증조라 하겠다.

전체 주민중 현재 결핵을 앓고 있다고 한 사람은 2.0%로 우리나라 현 결핵 이환률인 5.1% 보다 낮은 율을 보이고 있다.

모자보건에 비해 결핵에 관한 지식이 많은 것은 성사리 지역에 개혁 선교부에서 주로 결핵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한다.

5) 가족 계획

가족계획의 의미에 대해서는 52.4%로 반수 정도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나머지 반수 정도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피임 방법인 loop와 oral pill에서도 사용 방법에 대한 지식 정도는 33.2%, 24.0%로 낮은 비율 보였고 각 피임 방법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0~74%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다. 가족계획 방법의 장단점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지속적인 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가족계획 교육의 허점이 들어나고

있다고 하겠다.

피임 방법은 대개 2~3가지의 방법을 알고 있었고 한번이라도 피임 방법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49.3%이었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해 본 연령군은 35~39세이며 (90.9%) 사용한 방법은 I.U.D.(34.3%), Condom(31.3%), Oral pill(10.4%), 수술(1.5%)의 순서였다.

이것을 양¹⁾의 IUD 31.7%, Oral pill 27.9%, 재래식 방법 20.8%, 수술 15.2%와 비교해 볼 때 재래식 방법(Condom)은 높고 Oral pill과 수술은 낮은 것을 볼 수 있으며 1963년도 방⁴⁾의 조사인 원당면의 가족계획 사용자가 7.9%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것을 보아 6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수가 증가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사용해 본 연령군이 35~39세 임으로 이 연령군에 대한 가족계획 교육은 시급하지 않으며 20~34세의 연령군에 속한 부인들에게 터울 조절을 위한 가족계획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방⁴⁾의 조사인 원당면의 자연 유산률 3.6%, 인공 유산률 0.8%와 이 지역의 인공 유산률 5.3%, 자연유산률 3.6%를 비교해 보면 자연 유산률은 같으나 인공 유산률은 현저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인공 유산률이 현저히 상승됨은 자녀수를 조절하겠다는 의욕의 부산물로 인한 인구 정책면으로 본다면 좋은 현상이라고도 하겠으나 보다 충실한 피임 방법 사용 교육을 통해 모체 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족계획에 대한 찬성 여부를 보면 79.5%가 찬성했으며 25~29세, 35~39세 연령군의 응답자는 100% 찬성하고 있었으며 25~39세 사이의 연령군이 가장 관심도가 높았으나 15~19세가 50%, 20~24세가 73.3%나 찬성한다고 함은 좋은 경향이라 하겠다.

가족계획 방법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59.1%이며 방⁴⁾의 68%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낮았다.

7. 결 론

실태 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지역 전체의 보건에 관한 지식 정도와 실천에 관한 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었으며, 실태 조사가 아니면 얻을 수 없었던 많은 재료를 얻을 수 있어 학생들의 실습 계획에 큰 도움이 되었다.

본 실태 조사에서 얻은 자료는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보건간호 실습 지역 주민의

1) 인구학적 특성으로

- ① 인구 구조
- ② 인구의 성별, 연령별 분포
- ③ 인구 이동

2) 사회적 특성으로

- ① 교육정도
- ② 종교 분포
- ③ 경제 정도

3) 보건 간호 사업 대상으로

- ① 모자보건 사업 대상
- ② 가족계획 사업 대상
- ③ 결핵 간호사업 대상
- ④ 특수 질병 간호 대상

4) 보건에 대한 지식과 실천 상태로 모자보건, 결핵,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과 실천 정도를 파악함으로써

학생의 실제 보건간호 실습에 앞서 학생들에게 어떤 실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학생 개개인이 다양성있는 실습 경험을 제한된 시간내에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실습 양 할당에도 큰 도움이 되었으며, 본 조사시 사용된 질문지에서 얻은 가정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매 가정마다 가정 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었다. 본 실태 조사는 지역 사회 보건 문제를 학생들이 직접 파악, 포착하는 좋은 학습 경험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일단 발굴된 각 가정 보건 분야 문제점의 시급성 및 중요성과 이 문

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때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보건간호 요구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할당된 가정에 대한 가정 방문 색인표 (Ticker File system)를 이용하여 보건간호 계획을 체계있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고, 학생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일반적 특성속에서의 개인 가정의 위치를 파악하게 하고 지역 주민이 가진 건강 문제에 비추어 맡은 가정의 문제점을 이해하게 하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보며, 각 가정의 질문 응답지는 그 가정기록부에 첨가하여 개개 가정을 위한 보건간호 계획에 쓸 수 있는 기본 재료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실태 조사는 기존 재료가 없을 시 실습 대상 지역을 파악하여 그 지역에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보람있는 실습 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실습 배치에 선행될 필수 작업이라 하겠다.

또한 이 실습 계획을 위한 실태 조사는 앞으로 학생들의 실습으로 인해 그 지역 사회 주민에게 어느정도 영향을 주었는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기본 재료가 되었다.

·참고 문헌·

1. 양재모, 김명호, 연세지역에 대한 보건 기초조사, 예방 의학회지, Vol. 1, No. 1, 1968, pp. 25~36.
2. 김영숙, 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모자보건 실태에 관한 연구, 공중보건잡지, Vol. 6, No. 1, 1969.
3. 허정도, 모성보전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 및 실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68.
4. 방숙, 한국 농촌부인의 출산력 및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학박사 논문, 1963.
5. 권이혁외 5인, 서울시 인구의 출생, 사망, 양상에 관한 연구, 예방의학회지, Vol. 1, No. 1, 1968, pp. 9~23.
6. 노인규외 6인, 농촌 영아의 예방접종 실태조사, 공중보건잡지, Vol 6, No. 2, 1969, pp. 210-219.
7. 염방자, 육아지도회 이용 영유아에 관한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70.

부 록

15~50세까지의
대상자 이름 결과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Household No. _____

보건 간호 계획을 위한 기초 조사
(연세 대학교 간호대학 보건 간호 실습 지역: 성사 1, 2리)

응답자 이름 _____ 종 교 _____
세대주 이름 _____
경제 상태 상 중 하 방의 수 개

방문회수	방 문 일 자	방 문 시 간	조사자성명	방문 결과 (1. 완료 2. 부재 3. 거절 4. 기타)
1		부터 까지		
2				
3				
4				

가구원 기록표

번호	이름	가구주와의관계	성 별	나 이	배우관계 1. 유배우 2. 사별 3. 이혼 4. 미혼	현재임신여부	교육정도	건강상태	등록여부	동거여부
1					개월					
2										
3										
4										
5										
6										
7										
8										
9										
10										

이 부락에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년

(5년 미만인 경우에)

그 전에는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또 옮기신 이유는?

- _____
- _____ 1. 결혼
- _____ 2. 이사
- _____ 3. 기타 _____

“모성 보건”

(결혼한 분에게만)

1. 부인께서는 지금까지 몇번이나 임신을 하셨습니까? _____ 번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_____ 번

인공적으로 유산시키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_____ 번

사산되신 경우는? _____ 번

현존 자녀수는? 아들 _____ 딸 _____ 명

2. 부인께서는 원하신다면 임신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 모르겠다

(아니오 나 모르겠다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불임 수술(남, 여)
- 2. 왜 경
- 3. 결혼후 피임법 사용 없이 3년 이상 임신한 경험이 없다.
- 4. 유산후 혹은 분만후 피임법 사용없이 5년 이상 임신하지 않음.
- 5. 기타 _____

3. 불임증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배란이 안되어서 지식은 얻게 된 경로
- 2. 난관이 막혀서 1. 보건소간호원
- 3. 정충이 활발하지 못해서 2. 가족, 친지
- 4. 기타 _____ 3. 신문, 잡지
- 5. 모르겠다. 4. 기타 _____

4. 임신중 진찰 회수 :

(지식) (실천)

부인께서는 임신 3개월쯤에는 진찰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상이 생기면 간다.
- 2. 한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1.
- 3. 두달에 한번 / 2.
- 4. 기타 _____ 3.
- 5. 모르겠다. 4. _____

임신 6개월쯤에는 진찰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상이 생기면 간다.
- 2. 한달에 두번 정기적으로 1.
- 3. 한달에 한번 / 2.
- 4. 기타 _____ 3.
- 5. 모르겠다. 4. _____

막달이 되어 분만할 때가 가까워질 때쯤에는 진찰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이상이 생기면 간다.
- 2. 한달에 4번 정도 1.
- 3. 한달에 2번 정도 2.
- 4. 기타 _____ 3.
- 5. 모르겠다. 4. _____

5. 임신중에 어떠한 증상이 일어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부종
- 2. 부통
- 3. 하혈 1.
- 4. 계속적인 복통 2.
- 5. 소변 못봄. 3.
- 6. 경련 4. _____
- 7. 기타 _____
- 8. 모르겠다.

6. 임신중에는 무엇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운동
- 2. 수면과 휴식
- 3. 피부 청결 및 목욕
- 4. 영양
- 5. 성교 1.
- 6. 유방 손질 2.
- 7. 치아 3.
- 8. 체중 4. _____
- 9. 기타 _____
- 10. 투약
- 11. 모르겠다.

7. 임신중에 입덧이 나서 아침에 구역질이 심하게 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 1. 정상이므로 그대로 둔다.
- 2. 일어나기 전에 가벼운 음식을 먹는다.
- 3. 약을 먹는다.
- 4. 기타 _____
- 5. 모르겠다.

위의 지식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 1. 보건소 간호원
- 2. 가족, 친구
- 3. 신문, 잡지

20 간호학회지 (1)

8. 아기는 어디에서 낳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이라면)
 그 병원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이라면)
 태줄은 무엇으로 자르는 것이 좋겠습니까?
- 위의 지식은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 갖난 아기를 받을 준비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지식은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9. 산모가 분만전과 같은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산욕 기간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위의 지식은 어떻게 아시게 되었습니까?
10. 이 산욕 기간중에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 분만후 처음 나는 젖 즉 초유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영유아 보건”
 1. 예방주사는 주로 어디에서 맞히십니까?
4. 기타
 (지식) (실천)
 1. 병원
 2. 자기집, 친정
 3. 기타
 4. 모르겠다.
1. 가위를 끊어서
 2. 그냥 가위로
 3. 낫이나 칼로
 4. 입으로
 5. 기타
 6. 모르겠다.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구
 3. 신문, 잡지
 4. 기타
1. 산모 밑에 깔 고무포 혹은 솜이불
 2. 매야
 3. 태반 담을 용기
 4. 제대사
 5. 가위
 6. 산모 월경대
 7. 접안 용액
 8. 애기옷
 9. 기타
 10. 모르겠다.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구
 3. 신문, 잡지
 4. 기타
1. 2~4주
 2. 6~8주
 3. 3개월 이상
 4. 기타
 5. 모르겠다.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지
 3. 신문, 잡지
 4. 기타
- 지식을 얻게된 경로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지
 3. 신문, 잡지
 4. 기타
- (지식) (실천)
 1. 출혈
 2. 무거운 것을 들거나 파로
 3. 회음 및 전신청결
 4. 유방 팽창 금지
 5. 기타
 6. 모르겠다.
1. 짜버린다.
 2. 애기에게 먹인다.
 3. 기타
1. 보건소

지식을 얻게된 경로

- 1. 보건소 간호원
- 2. 가족, 친지
- 3. 신문, 잡지
- 4. 기타 _____

- _____ 2. 병원 _____ 2.
- _____ 3. 맞힌 적 없다 _____ 3.
- _____ 4. 기타 _____ 4.

(지식) (실천)

2. 애기들에게 맞는 예방주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_____ 1. 디·피·티 _____ 1.
- _____ 2. 소아마비 _____ 2.
- _____ 3. 홍역 _____ 3.
- _____ 4. 중두 _____ 4.
- _____ 5. 장티부스 _____ 5.
- _____ 6. 비.씨.지 _____ 6.
- _____ 7. 모르겠다. _____ 7.
3. 위의 예방주사는 애기 때 한번 맞히던 끝나는 것입니까? _____ 1. 예, _____ 1.
- _____ 2. 아니요. _____ 2.
- _____ 3. 모르겠다. _____ 3.
- _____ 4. _____ 4.

4. 다음의 예방주사는 언제 어떻게 맞히는 것입니까?
- 가. 디.피.티 _____ 1. _____ 회 _____ 1.
- 나. 소아마비 _____ 2. _____ 회 _____ 2.
- 다. 중두 _____ 3. _____ 회 _____ 3.
- 라. 홍역 _____ 4. _____ 회 _____ 4.
- _____ 모르겠다. _____

5. 백일천 애기 목욕은 얼마나 자주 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매일 _____ 1.
- _____ 2. 이틀에 한번 _____ 2.
- _____ 3. 사흘에 한번 _____ 3.
- _____ 4. 일주에 한번 _____ 4.
- _____ 5. 기타 _____ 5.
- _____ 6. 모르겠다 _____ 6.

- 애기는 모유와 우유중 어느것으로 기르는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모유 _____ 1.
- _____ 2. 우유 _____ 2.
- _____ 3. 혼합 _____ 3.
- _____ 4. 모르겠다. _____ 4.

6. 언제부터 애기에게 모유나 우유가 아닌 다른 것을 섞여 먹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3-4개월 _____ 1.
- _____ 2. 5-6개월 _____ 2.
- _____ 3. 7-8개월 _____ 3.
- _____ 4. 6-10개월 _____ 4.
- _____ 5. 1살 이상 _____ 5.
- _____ 6. 기타 _____ 6.
- _____ 7. 모르겠다. _____ 7.

7. 애기 젖은 언제 떼는 것이 좋겠습니까? _____ 1. 1년 이내 _____ 1.
- _____ 2. 2년 _____ 2.
- _____ 3. 3년 _____ 3.
- _____ 4. 4년 _____ 4.
- _____ 5. 자연히 안 먹을 때 _____ 5.
- _____ 6. 기타 _____ 6.

이 동네 애기들에게 가장 흔한 병은 무엇입니까? _____

혹시 이 동네에 간질병이 있는 사람이 있는 집이 있습니까? _____ 예. ()명 _____

_____ 아니요. _____

_____ 모르겠다. _____

“가족 계획”

1. 가족계획이란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1. 애기 못나게 하는 것 _____ 1.
- _____ 2. 가지고 싶은 수만큼의 자녀를 가지고 싶을 때 갖는 것 _____ 2.
- _____ 3. 터울 조절 하는것 _____ 3.
- _____ 4. _____ 4.

지식을 얻게된 경로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지
3. 신문, 잡지
4. 기타

2. 가족계획을 찬성하십니까?

- ___ 4. 모르겠다.
- ___ 5. 가족계획이라는 말을 들어 본 적도 없다.
- ___ 6. 기타
- ___ 예.
- ___ 아니오.
- ___ 관심없다.

(예인 경우)
3. 가족계획을 찬성하시는 이유는?

- ___ 1. 경제상
- ___ 2. 모자보건
- ___ 3. 유전병 막기 위해
- ___ 4. 기타 _____

(기혼녀에게)
4. 피임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 ___ 1. 예.
- ___ 2. 아니오.
- ___ 1. 예.
- ___ 2. 아니오.

(미혼녀에게) 앞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예인 경우)
(기혼녀에게) 사용해 보신 방법은?
(미혼녀에게) 사용하실 방법은?

- ___ 1. IUD
- ___ 2. 먹는 피임약
- ___ 3. Condom
- ___ 4. 불임 수술
- ___ 5. 기타 _____
- ___ 6. 모르겠다.

5. 피임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 ___ 1. IUD
- ___ 2. 먹는 피임약
- ___ 3. Condom
- ___ 4. 기초체온, 월경주기
- ___ 5. 발포성 경계
- ___ 6. 멧사리
- ___ 7. 불임수술
- ___ 8. 기타 _____
- ___ 9. 모르겠다

6. 루프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경제성
- ___ 2. 정확성
- ___ 3. 간편
- ___ 4. 기타 _____
- ___ 5. 모르겠다,
- ___ 6. 루프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루프의 나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1. 부작용 많다.
- ___ 2. 정확하지 못하다.
- ___ 3. 기타 _____
- ___ 4. 모르겠다.
- ___ 5. 없다.

7. 먹는 피임약의 장점은?

- ___ 1. 정확성
- ___ 2. 간편
- ___ 3. 기타 _____
- ___ 4. 모르겠다.
- ___ 5. 먹는 피임약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단점은?

- ___ 1. 부작용
- ___ 2. 매일 먹는 것이 불편
- ___ 3. 기타 _____
- ___ 4. 모르겠다.

지식을 얻게된 경로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지
3. 신문, 잡지
4. 기타

8. 콘돔(사구)의 장점은?

- | | |
|-------------------------|----------------|
| _____ 1. 부작용 없다. | _____ 1. |
| _____ 2. 간편 | _____ 2. |
| _____ 3. 정확 | _____ 3. |
| _____ 4. 기타 | _____ 4. _____ |
| _____ 5. 모르겠다. | |
| _____ 6. 콘돔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

단점은?

- | | |
|-------------------|----------------|
| _____ 1. 협조 잘 안됨. | _____ 1. |
| _____ 2. 성감에 장애 | _____ 2. |
| _____ 3. 기타 | _____ 3. |
| _____ 4. 모르겠다. | _____ 4. _____ |

9. 정관수술의 좋은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_____ 1. 간편 | _____ 1. |
| _____ 2. 경제적 | _____ 2. |
| _____ 3. 정확 | _____ 3. |
| _____ 4. 기타 | _____ 4. _____ |
| _____ 5. 모르겠다. | |

나쁜 점은?

- | | |
|-----------------|----------------|
| _____ 1. 부작용 | _____ 1. |
| _____ 2. 복원 불가능 | _____ 2. |
| _____ 3. 기타 | _____ 3. |
| _____ 4. 모르겠다 | _____ 4. _____ |

10. 루프는 언제 삽입할 수 있습니까?
분만후에는?
유산후에는?

- | | |
|-------------------|----------|
| _____ 1. 아무때나 원하던 | _____ 1. |
| _____ 2. 월경 끝난 직후 | _____ 2. |
| _____ 3. 분만후 1개월후 | _____ 3. |
| _____ 4. 유산후 1개월후 | _____ 4. |
| _____ 5. 기모 | |
| _____ 6. 모르겠다. | |

11. 루프는 어디서 삽입할 수 있습니까?

- | | |
|----------------|----------------|
| _____ 1. 보건소 | _____ 1. |
| _____ 2. 병원 | _____ 2. |
| _____ 3. 이동시술차 | _____ 3. |
| _____ 4. 기타 | _____ 4. _____ |
| _____ 5. 모르겠다. | |

12. 먹는 피임약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 | | |
|--|----------------|
| _____ 1. 매일 한알씩 월경 시작후
5일째 되는날부터 먹는다. | _____ 1. |
| _____ 2. 남편이 있을 때만 먹는다. | _____ 2. |
| _____ 3. 기타 | _____ 3. |
| _____ 4. 모르겠다. | _____ 4. _____ |

13. 정관수술 직후의 주의점을 알고 계십니까?

- | | |
|-------------------------------------|----------------|
| _____ 1. 심한 운동은 피한다. | _____ 1. |
| _____ 2. 1주일도까지는 계속 피임
방법을 사용한다. | _____ 2. |
| _____ 3. 기타 | _____ 3. |
| _____ 4. 모르겠다. | _____ 4. _____ |

14. 다음 피임법의 부작용과 그 해결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가) 루프

부	작	용	해	결	방	법
1.	허리,	배등의	통증			_____ 1.
2.	출혈					_____ 2.
3.	자연배출					_____ 3.
4.	사고 임신					_____ 4.
5.	기타()			
6.	모르겠다.					

24 간호학회지 (1)

지식을 얻게된 경로

- 1. 보건소 간호원
- 2. 가족, 친지
- 3. 신문, 잡지
- 4. 기타 _____

나) 먹는 의약품

부 작 용	해 결 방 법
1. 메스껍다	
2. 소화장애	
3. 체중 증가	
4. 기미	
5. 출혈	
6. 기타()	
7. 모르겠다	

- _____ 1.
- _____ 2.
- _____ 3.
- _____ 4.

다) 경관수술의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__ 1. 없다.
- _____ 2. 기운이 없어진다.
- _____ 3. 여자같이 된다.
- _____ 4. 기타 _____
- _____ 5. 모르겠다.

- _____ 1.
- _____ 2.
- _____ 3.
- _____ 4.

13. 가족제척 방법에 대해서 더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예”인 경우 어떤 방법으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 _____ 예.
- _____ 아니오.
- _____ 1.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다.
- _____ 2. 부인끼리만 모여서
- _____ 3. 부부가 같이 모여서
- _____ 4. 보건소에 가서
- _____ 5. 간호원이 집에 찾아 와서
- _____ 6. 기타 _____

<결 해>

1. 부인께서는 우리나라에서 보통 무슨 병으로 많이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모르겠다
2. 이 부락에서는 요사이 주로 무슨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 하십니까? _____
_____ 모르겠다
3. 이 부락에서 결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_____
_____ 1. 자주 한다.
_____ 2. 약간
_____ 3. 전혀 안한다.
_____ 4. 모르겠다.
4. 폐결핵의 발생의 조건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1. 전염
_____ 2. 감기
_____ 3. 나쁜 집 구조
_____ 4. 영양부족
_____ 5. 유전
_____ 6. 먼지 혹은 더러운 공기
_____ 7. 기타 _____
_____ 8. 모르겠다.
5. 결핵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1. 예. _____ 1.
_____ 2. 아니오. _____ 2.
_____ 3. 모르겠다. _____ 3.
_____ 4. _____ 4.
6. 결핵은 전염되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_____ 1. 예. _____ 1.
_____ 2. 아니오. _____ 2.
_____ 3. 모르겠다. _____ 3.
_____ 4. _____ 4.

	이유	지식을 얻게된 경로
7. 남자와 여자중 누가 더 결핵에 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input type="checkbox"/> 1. 남자 <input type="checkbox"/> 2. 여자 <input type="checkbox"/> 3. 같다 <input type="checkbox"/> 4. 모르겠다.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지 3. 신문, 잡지 4. 기타 _____
8. 결핵에 잘 걸릴 수 있는 연령은 몇 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10세 이하 <input type="checkbox"/> 2. 10-19세 <input type="checkbox"/> 3. 20-29 <input type="checkbox"/> 4. 30-39 <input type="checkbox"/> 5. 4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6. 같다. <input type="checkbox"/> 7.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9. 결핵의 증상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1. 기침 <input type="checkbox"/> 2. 체중감소 <input type="checkbox"/> 3. 피로 <input type="checkbox"/> 4. 창백 <input type="checkbox"/> 5. 호흡이 짧아짐. <input type="checkbox"/> 6. 피를 토함 <input type="checkbox"/> 7. 허약 <input type="checkbox"/> 8. 밤에 식은땀 <input type="checkbox"/> 9.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10.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10. 어디에서 결핵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를 해 줍니까?	<input type="checkbox"/> 1. 보건소 <input type="checkbox"/> 2. 병원 <input type="checkbox"/> 3.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4.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11. 결핵은 예방할 수 있는 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12. 결핵은 치료할 수 있는 병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3.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예 라면)		
13. 결핵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약으로 <input type="checkbox"/> 2. 안정 <input type="checkbox"/> 3. 영양섭취 <input type="checkbox"/> 4. 맑은 공기 <input type="checkbox"/> 5.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6. 모르겠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14. 비. 씨. 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input type="checkbox"/> 1. 예. <input type="checkbox"/> 2.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15. (예 라면)		
비. 씨. 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1. 결핵예방 주사 <input type="checkbox"/> 2. 결핵치료 주사 <input type="checkbox"/> 3. 기타 _____	<input type="checkbox"/> 1. <input type="checkbox"/> 2. <input type="checkbox"/> 3. <input type="checkbox"/> 4. _____
16. 결핵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부인해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input type="checkbox"/> 1. 가능성 크다. <input type="checkbox"/> 2. 걸릴 수도 있다. <input type="checkbox"/> 3. 거의 없다. <input type="checkbox"/> 4.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5. 모르겠다.	이유 _____

26 간호학회지 (1)

지식을 알게된 경로

1. 보건소 간호원

2. 가족, 친지

3. 신문, 잡지

4. 기타

17. 만약에 결핵에 걸리신다면 어느 정도로 그 치료에 힘쓰실 수 있었습니까?

_____ 1.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치료한다.

_____ 2. 1년 농사 지은 것 정도는 들일 수 있다.

_____ 3. 반년 농사

_____ 4. 돈을 들일 수 없다.

_____ 5. 기타 _____

이름 _____

18. 혹시 택의 가족중에 결핵을 앓는 분이 계십니까?

19. 아직도 결핵을 꺼리고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_____

20. 앞으로 보건소에서 무슨 사업을 더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